

“조직 혁신 통해 경영평가 제고… 해양교통안전 솔루션 마련”

김준석 KOMSA 이사장 간담회

선박검사, 안전운항 방안 등 발표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설립 계획
“소통 강화… 평가 저절로 나아질 것”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위탁집행유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곳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입니다. 직원들이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20일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KOMSA 서울출장소에서 한국해양기자협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선박검사와 선박안전운항에 대해 한단계 높은 시스템적인 대응 방안에도 대해서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해양사고 예방 및 종합관리를 위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오는 6월까지 실시간 교통량 분석, 여객선 입출항시간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0일 KOMSA 서울출장소 영등포구 출장소에서 ‘한국해양기자협회 초청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양기자협회

예보 등 7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MSA는 올해 상반기 중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를 인천과 목포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는 일종의 선박검사장으로, 지정·예약을 통해 당일 검사종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김 이사장은 “매년 국내에서 약

2000척의 어선이 신조되고 있지만 분산된 영세 조선사에서 건조되고 있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으로 조선사 집적화를 유도하고,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조선사 경쟁력 및 어선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어선건조 지원센터는 전남 고흥에 490억 원의 사업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약 3만 5700평, 완

공예정일은 2027년이다.

공단의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다. 2015년에 비해 현재 공단의 인원과 예산은 2배로 확대됐으며, 김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사업으로 향후 5년 내 조직이 40% 이상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530명 수준(계약직 제외)인 직원이 5년내 1000명이 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몇 년 사이 조직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공단 내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직원들 간 의사소통에 문제도 발생했으며, 해양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대외적으로 공단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면서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E’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내부에서는 김 이사장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부로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 이사장은 부산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국장, 수산정책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해수부내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로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KOMSA가 해양안전

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모든 해양안전사고를 직접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며 “우리 공단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박검사와 여객선 안전관리를 정책 위주로 철저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업무, 해양교통시스템업무, 연구 업무에서 가시적 성과 보인다면 경영평가 등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부임 후 대폭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약 100일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5본부 4본부로 줄이고 부서도 74개에서 55개로 통합하고 인력도 감축했다. 지방조직은 18개 지사, 2개 출장소, 12개 운항관리센터로 개편했다.

김 이사장은 “당장 경영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대내적으로 조직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소통 경영을 강화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평가는 나아질 것이고, 이는 또 국민들의 해양안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퓨처엠’ 사명 변경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 탈바꿈
김준형 사장, 대표이사 선임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퓨처엠’(POSCO FUTURE M)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친환경 미래소재 기업으로 거듭난다.

포스코케미칼은 20일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 변경을 확정하고 김준형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명 선포식을 개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971년 창립 당시 포항촉로주식회사를 비롯해 52년간 맞이한 8번째 이름이자, 2019년 양극재 사업을 담당하던 포스코ESM과 합병하며 포스코켄텍에서 포스코케미칼로 사명을 변경한 지 4년 만의 새 이름이다.

새 사명은 경쟁력 있는 소재(Materials)를 통해 세상의 변화(Movement)를 이끌며 풍요로운 미래(Future)를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Management)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지주사 출범과 함께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대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핵심 사업 회사로 그룹의 새로운 미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이 20일 포항 본사에서 개최된 사명변경 선포식에서 사기를 흔들고 있다.

래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에 포스코그룹이 ‘제철보국’의 정신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이제는 포스코퓨처엠을 중심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최고 품질의 소재를 공급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소재보국’의 대업을 이뤘나간다는 다짐도 함축했다.

최근 이차전지 사업이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사업 분야로 선정되면서 포스코퓨처엠의 그룹 내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김준형 포스코퓨처엠 사장은 “회사

이름도 시대정신과 소명을 담아 조금씩 변화했다”며 “화학·에너지 소재 글로벌 리더 컴퍼니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100년 기업의 새 미래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여정을 이름을 새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새롭게 회사를 이끌 사내의 이사로 선임했다. 김준형 사장이 대표이사로,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이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 현재 사내이사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과 김원용-이동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인 유병욱 포스코 친환경미래소재팀장은 재선임됐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중, 자율운항 LNG 운반선 개발 나서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JDA 체결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선박 기술업체 ‘콩스버그’와 손잡고 자율운항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개발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노르웨이 선박 기술업체 콩스버그와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 협약(JDA)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콩스버그는 선박에 탑재되는 자동화·항해 시스템 및 디지털 솔루션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 기자재 업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최신 원격 자율운항기술 및 저탄소 기술을 최적화해,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인 17만4000m³ 급 차세대 LNG운반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글로벌 천연가스 물동량 증가로 인해 매년 선가가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왼쪽)과 리사 에드바스 하우겐 콩스버그 마린타임 대표이사가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위한 공동 개발 협약서(JDA)에 서명하고 있다.

치솟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은 국내 조선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선종이다.

삼성중공업은 “콩스버그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고 미래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적극 공략해 디지털·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SK실트론, 지역농가 지원 팔 걷어… 못난이농산물 과자 출시

버려지는 농산물, 이색 먹거리 활용

SK실트론이 초등학생들과 머리를 맞대 개발한 못난이농산물 야채칩이 나왔다.

SK실트론은와디즈에 ‘갈릭마브’와 ‘어니언 마브’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스

낵이다. 지역 농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수익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SK실트론은 구미 정수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구성된 ‘밝은E’들 팀 아이디어를 현실화했다. 지역 ESG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시행한 ‘my구미’ 프로그

램을 통해서다.

SK실트론은 못난이농산물야채칩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자금 지원과 김영빈 요리연구가 등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판로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했다. 지역 농가와 판매처를 확대하며 지역 특산물로도 발전시키자는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juk@

벤츠코리아

7세대 SL 라인업 공개

메르세데스-벤츠 로드스터가 돌아온다.

벤츠코리아는 4월 7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출시를 앞두고 라인업과 가격을 공개했다. 2023 서울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출고가는 각각 2억3360만원, 2억5860만원이다.

SL은 벤츠가 1952년 처음 선보인 후 70년간 이어오고 있는 럭셔리 로드스터다. 레이싱카 300SL을 시작으로 7세대에 걸쳐 업그레이드됐다.

이번 모델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MATIC+ 퍼포먼스’ 2종으로 출시된다. 처음으로 AMG가 독자 개발하며 의미를 더했다.

외관은 벤츠가 추구하는 ‘감각적 순수미’에 AMG 스포티함을 결합했다. 긴 휠 베이스와 보닛에 짧은 오버행, 경사진 전면 유리로 특별한 비율을 완성.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프론트 엔드를 강조한다. 14개 수직 슬랫이 평평한 보닛 형태와 2개 파워 벌지와 함께 원조 모델인 300SL을 연상케 한다.

인테리어는 ‘하이퍼아날로그’를 구현했다. 제트키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받은 송풍구 디자인을 이어가면서 12.3인치 계기판과 11.9인치 센트럴 디스플레이 등을 조합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이사 사장은 “7세대 SL이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선사하며 럭셔리 스포츠카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